

건축사지 역대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방담회

일 시 | 2010. 11. 10(수)

장 소 | 건축사회관 8층 편집실



최동규 : 건축사지가 오는 12월이면 500호가 되어, 특집 기념 겸 여러 가지 준비(행사) 중 하나로 역대 건축사지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영배 교수(건축생략)와 김만성 건축사 같이 원로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담회 자료를 보시면 오늘 할 이야기들을 기록해놓았는데, 거기에 맞출 수도 있고 또 생각나시면 별도로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도 「건축사지」는 받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만성 건축사는 잘 받고 계십니까?

김만성 : 협회를 방문할 때마다 가져가서 보고 있습니다.

최동규 : 안영배 교수는 몇 년도에 편찬위원장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영배 :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약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최동규 : 김만성 건축사도 한 20여년 전인가요. 아니면 그 후이신지요? 오늘 모신 역대 위원장들을 장양순 건축사가 시기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강철구 건축사는 언제쯤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강철구 :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방철린 : 저는 1996~8년도에 맡은 것 같습니다.

최동규 : 1996~8년도면 가까우니까 그래도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장양순 건축사는 언제 맡으셨습니까?

장양순 : 저는 99년부터 건축사지에 몸담고 있습니다. 2년하고 2년 쉬고, 또 2년하고 해서 위원장을 4년, 담당이사로 지금까지 4년 모두 8년째입니다.

최동규 : 어차피 건축사지 최근에 발행되는걸 보고 어떤 분은 뭐 일반건축 잡지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샘 어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아키텍처럴 레코드 (Architectural Record)라는 잡지가 사실은 미국건축사협회 기관지로 만드는 잡지예요. 최영집 회장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도 AR지 같이 해보려고, 또 전진삼 발행인(와이드 AR)에게 맡겨서 수준을 높여볼까 하다가 예산 문제로 다시 저화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건축사지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한 분씩 말씀 해주시거나, '건축사지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성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지가 너무 기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회장 및 임원들의 노출이 잦은 듯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를 다녀왔다든가, 무슨 회의를 했다든가 등등 말입니다.

최동규 : 근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만성 : 이런 것들은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건축사지가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업적인 면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동규 : 그 말씀은 건축사지가 대사회적으로 팔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만성 : 네,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 볼 때 뉴스 같은 것은 작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한명수 전 회장 때부터 그런 경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점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규 : 대한건축사협회 내 인물들에 대한 기사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까지는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것이 건축사지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록성은 있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상업지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품에 대한 것은 상업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건축사지에는 이 시대의 정신을 담아야 되고, 현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주로 다뤄야 되고, 건축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협회에서 하는 일들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건축사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건축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구 : 우선 건축사지는 제호 자체가 '디자인'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데, 잡지를 보면 더 관료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으로서의

건축사지의 본연의 기능은, 건축사의 업무에 충실(작품소개, 글 내용 등)하고 의식구조 즉, 건축사의 안목과 의식수준을 높여 주는데 초점을 두고, 항상 건축사를 대변하고 옹호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적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편집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만성 : 네, 그렇습니다. 협회 관련 인물이 차지하는 면이 많은 듯 합니다.

윤도근 : 먼저, 건축사지의 500호 특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건축사지의 내용이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느낀 점은, 디자인이나 시각적 효과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축사지의 본연의 기능은, 건축사의 업무에 충실(작품소개, 글 내용 등)하고 의식구조 즉, 건축사의 안목과 의식수준을 높여 주는데 초점을 두고, 항상 건축사를 대변하고 옹호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적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편집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제가 참여했던 건축사지는 건축사의 지식을 높여주는 특집을 설정하고 그 내용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형평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기억 됩니다. 현재의 사고로 보면 내용이 빈약하게 생각 될 수도 있으나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며, 시대적 사회상황의 배경과 수준으로 봐 주면 좋겠습니다.

*서면 참여 : 윤도근 교수(홍익대학교)

장양순 : 김만성 건축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잡지에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 여섯 번 씩 나오고,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 점은 분명히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협회에서 신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되어야 될 텐데, 건축사지가 기관지의 성격이다 보니 솔직히 요즘에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반으로 줄여서라도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 회원 위주만 보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있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판형도 바꾸고, 변형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내용적인 면도 좀 전에 김만성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뉴스는 작게 게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지 내에 게재되는 광고도 디자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광고디자인이라면 싸구려 책으로 보입니다. 조금 괜찮은 고급스러운 잡지에서는 이러한 광고는 게재해 주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건축사지는 삼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점이 좀 불만입니다. 게재되는 내용은 편찬위원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건축잡지라면 좀 근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동규 : 제가 이제 일 년 좀 넘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작하려다 보니 예산적인 면에서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구 : 현재 건축사지가 130여 페이지 아닙니까?

최동규 : 네, 맞습니다.

강철구 : 60페이지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게재된 것을 보니까 60페이지 정도 제작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큰 듯하고, 무게도 무겁게 느낍니다. 종이도 조금 가벼운 것으로 사용하고, 작게 제작해서 “정말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책을 만들어야 진짜 건축사가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건축사지는 마치 과거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소식지 같습니다.

방철린 :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이 보입니다. 전문지로서 갖출 것을 짜임새 있게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지가 너무 소식지 같은 내용을 걸러짐 없이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나 지회소식, 회원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내용, 더 나아가서 취미모임 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구분 없이 다양한 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전문성에 비추어 꼭 게재해야 할 홍보성 꼭지들을 잘 선택하여, 책의 뒷부분으로 짙막하게 몰아서 ‘건축사 광장’ 같은 코너에 게재하고,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볼거리 위주로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지가 해야 할 내용 중에 ‘정보전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작품정보에 관한 내용은 지금 게재 중인 작품정보를 그대로 살리고, 그 외에 건축사들이 꼭 보아야 할 다양한 내용의 건축정보가 실렸으면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세계 건축 경향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건축사회원들이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폭넓은 건축관련 정보들이 게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기록’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록은 건축사지가 가져야 될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건축사들, 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서 수십 년 후에도 그 기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며, 신진 건축사들도 발굴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건축사만 보는 책이면 곤란하고 일반인들도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역할을 알게 하고 건축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탐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축 역사도 탐구해야 되고, 건축 철학에 대한 것도 많이 이해될 수 있도록 게재해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모두 게재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이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골고루 실을 수 있도록 장기간 배분해서 골고

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교대로 게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동규 : 이야기를 듣다보니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만나서 만들 잡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격을 올리려면, 예전에 일본에서 나온 SD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편집 팀이 두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 팀은 8월호 한 팀은 9월... 이렇게 구성되니까 밀도 있게 만들어지는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마음껏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영배 교수가 한 말씀 해주시죠.

안영배 : 건축사지가 예전엔 사이즈도 작고, 칼라면도 없이 흑백으로 제작됐는데, 지금 건축사지를 보면 많은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이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축사들의 어떤 토의나 논리, 대담 등 이러한 각자의 의견들이 좀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건축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전문지들이 많으니까 작품이 크게 실리는 것은 그러한 잡지들에게 맡기고, 건축사지는 어떤 건축사들이 어떤 작품들을



안영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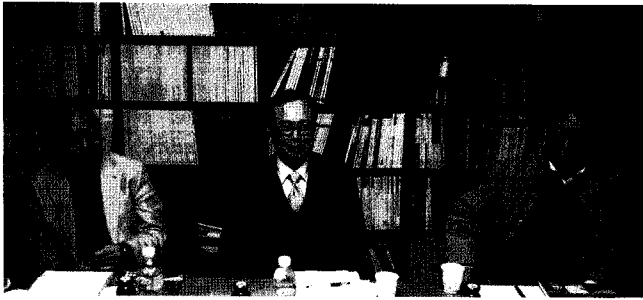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교
1972년~73년 위원장 역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기록이랄까요. 꼭 좋은 건축물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회원작품을 게재하면 좋을 듯합니다. 좀 비중이 있다면 한 2페이지 정도 그리고 보통 1페이지 정도는 기록으로써 어떤 건물들이 최근에 지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게재했으면 합니다.

작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최근 건축사 회원들에 의해 어떤 건축물을 지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적으로 게재하다보면, 지금보다 몇 배의 작품들이 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광고도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럭셔리, 그런 것보다도 자료로서 쓸 수 있게끔 말이죠. 특히 광고를 실을 때는 칼라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컬러풀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협회 임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많이 실릴수록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칼라는 너무 화려하니까 흑백으로 처리해서 게재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무슨 회의에 무엇을 했다’는 내용으로 사진보다는 나올 듯합니다. 표지도 건축작품을 게재하더라도 색감을 얹게 하면 좋겠어요. ‘건축사’라는 제호가 뚜렷하게 보이게 말이죠.

너무 컬러풀하니까 일반 잡지와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건축학 학지나 뭐 건축가협회지는 대개 표지에도 중요한 항목만 게재하면 ‘아 이번엔 이런 내용인 게 게재되었구나’를 표지만 봐도 알 수 있





으니까요.

표지에 요약해서 표기를 해주면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 정책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들 논의들 하기도 하는데 건축정책에 대해 게재도 되었으면 좋겠고, 건축사법, 건축법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사항이나 의견들도 게재하고요, 꼭 건축법 관련 책을 매번 사서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최동규 : 안 교수 말씀은 '일반 작품은 일반 건축잡지에 역할을 맡기고 건축사지는 기관지로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실어서 알리는데 본연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관직 건축사도 한 말씀해주세요.

이관직 :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성은 다른 분야의 전문성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병원, 문화시설, 학교 등 다양한 용도를 설계하다보니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건축사의 전문성은 오히려 대중성이나 일반성에 가깝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건축사만의 전문잡지 또는 우리 내부의 어떤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분야하고 소통하는 쪽의 내용이 있어야 다른 분야에서 건축주들도 같이 읽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전문성에 관해서 용도별로 다루다보면 다양한 건축주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실을 수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생각해서 일반적인 내용도 섞여있는 전문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 의견들을 들어보면 시중에 팔릴 정도로 제작해서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지는 의견이었습니다. 편집 회의 때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윤도근 : 현대사회의 개념은 읽는 개념 보다는 현대적 감각의 시각 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나 글을 편집하는 형식(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즉 작품 제목의 활자 위치배열(작품사진 위에 작품제목 배열하는 등은 지향), 작가명 위치배열, 작품사진 위치배열, 글 내

용의 위치배열 등을 과감하게 디자인상 재배치 하는 연구와 과감한 개선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건축사지의 독자들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모던한 느낌을 주고, 신선하고 활력 있는 새로운 내용을 음미하는 효과를 제공함이 바람직합니다.

김만성 : 여기 모인 우리 여섯 사람 중에서 네 명은 조금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 같고, 두 명은 실무적인 기관지로서 만들자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지는 일반인들하고 가깝게 만들어야 하고, 건축사 회원들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싸게 사서 볼 수 있는 일반 잡지책 보듯이 이런 형상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 선배님은 사진을 좀 줄이자고 하셨는데, '건축물이 멋있다'고 느끼게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사진들이 많이 실려야 이 책의 가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적이고 무슨 구체적인 정보나 공법이 어떨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보는 거겠지요.

또한 대중화를 지향하려면 제호에서 '건축사'를 빼야할 것입니다. 즉 일반사람들한테 보여줄 일반 건축잡지를 제작하려면 제호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사지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최동규 : 참고로 이거 한권 만드는데 얼마 들죠?

최락청(협회 홍보편찬팀장) : 총 예산에서 비춰보면 대략 발송비까지 포함해서 11,000부 제작하는데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제작비가 듭니다. 아울러 광고 수입은 한 달에 한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동규 : 오늘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고, 또 역대 편찬위원장님들이 남달리 책임을 맡으셔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회고하는 자리 겸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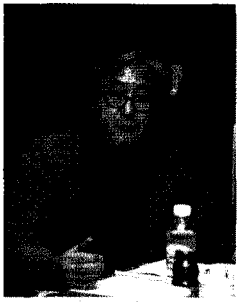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역대 편찬위원장이 당시 역정을 두었던 편집 목표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철린 건축사부터 이야기해주시시오.

방철린 : 제가 말을 당시 건축사지가 기관 및 회원지 성격이 강해 이보다 전문지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의 편집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만성 건축사

주. 건축사사무소 건축포럼
1967년~73년 위원 역임



방철린 건축사

1칸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196년 위원·97년~98년 위원 역임

니가 회원 작품이라든가, 작품노트,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사, 전통 건축, 해외건축-이런 코너들은 품만 변경시켜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반면에 '회원동정', '일하며 생각하며', '나의 스케치' 등 꼭지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축소하거나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 된 작품을 편찬위원회에서 한 달에 하나씩 선정하여 부각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품리뷰'라고해서, 건축사가 제출한 선정 작품을 갖고 선정된 대담자와 비평가가 대담과 비평을 하게 하여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한 달에 하나씩 했습니다. 또 다른 추가 내용으로는 '테마기획'입니다. 그때가 IMF시절이었고 상당히 건축사들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지방 건축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방 건축 탐방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지요.

전국의 지역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과 교수라든가 건축사를 편집 디렉터로 지정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꼭지를 여러 개를 만들게 해서 그 지역의 역사적,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글도 쓰고 그 지역의 우수건축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지의 특성상 회원지의 성격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재하여 있는 협회나 회원들의 소식을 '건축마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 안에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기획작품, 설계도서신고 현황, 게시판 등을 일정 면에 정리 축소해서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건축마당'에 해외잡지동향에 대해서 넣어 폭넓은 정보를 얻도록 했습니다.

장양순 :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잡지든 권두언(卷頭言)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자가 정말로 가야할 방향을 쓰는 것인데, 이게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위원장시절에는 이것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회원들 글을 많이 신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임기에서는 제가 거의 권두언을 쓰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주로 건축사들이 가야할 길, 건축사협회가 가야할 길,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할 문제 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협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아니고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아무튼 권두언이 계속 게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북 디자인부터 바꿨습니다. 안상수 교수에게 북 디자인을 부탁 했는데, 많은 예산은 들일 수 없었는데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책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책을 보여준다)

내지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 글자체, 글씨크기 같은 것에 변화를 주어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책 내용을 보

나머지 다른 하나는 방철린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일하며 생각하며' 같은 것들이 일종의 잡문 내지, 커피잔 마시며 쉬어가는 페이지인데, 그런 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건축문화신문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잡지를 잘 분리해서 대중적인 내용은 신문으로, 잡지는 전문성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개의 매체가 양립할 수 있는 바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철구 : 그런데 두 가지씩 하는 것 보다 하나를 가지고 잘 만들면 어때요? 난 이해를 못하겠고, 또 나같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보다는 두 매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 없애고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말이죠.

장양순 : 신문에는 현재 작품을 다루는 면이 없습니다. 우선 그것만 해도 차이가 나요. 건축사의 요구사항, 부당한 일들, 관계법령 개정 등을 기사로 다뤄 대관관계에서 건축사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씁니다. 작품을 단 하나도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납니까?

방철린 : 지금 저는 잡지와 신문의 분류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지하고 신문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신문을 보면 그 내용이 오히려 회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이런 저런 건축계 안팎의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건축사지와 달리 괜찮다고 생각해서 차별화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동규 : 강철구 건축사도 당시 편찬위원장 하면서 특별히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강철구 : 당시 저는 건축사지 디자인에 신경을 썼지, 내용은 바꾸기 힘들겠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라는 것이 우선 원고 받는 게 바쁘겠지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그때 당시는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쟁인 건축가 협회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외형은 건축가협회지보



다 건축사지가 못했어. 돈은 더 많이 사용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하는 고민했던 기억만 남는다.

김만성 : 많이 발전은 되었어요. 발전은 되었는데... 명실 공히 일반적인 잡지계통으로 나가려면 조금 더 진보적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합니다.

강철구 : 내 경험에 의하면 사실 지금 예산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예산 3,0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축사협회 사정상 좋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압니다. 나도 해봤으니까.

제가 지금 한국기원 감사로 있습니다. 한국기원에서 '바둑'이라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고 난 다음부터 잡지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건축사지도 협회 내에서 미주알고 주알 실무까지 다 챙길게 아니라, 지금 장양순 건축사가 말씀하신 대로 시문 같은 원고를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외주를 맡겨서 한번 시중에 배포를 해 다른 잡지와 경쟁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볼 때 훨씬 나올 듯합니다.

안영배 : 그렇죠. 적자입니다. 아무튼 일반 건축잡지하고 경쟁하는 성격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잡지가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점이 있는데, 너무 외국작품만 게재해서 국내 작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 것도 꽤 많은데 말이죠.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지에서 건축사들 회원 작품을 많이 실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컬러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 가지 색 정도로 제작하고 특별한 경우에 컬러로 하면 되겠지요. 사실 이렇게 작품을 크게 잡지를 게재하는 것이 건축사협회지에서 할일이 아니거든요. 왜 누구 작품을 그렇게 크게 하느냐. 다른 더 좋은 작품도 있는데... 비난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잡지에서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건 잡지의 성격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성격의 잡지에서는 역시 기록위주로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해마다 건축문화대상 같은 작품만을 화려하게 한번 게재하면 될 것입니다.

건축계에는 이밖에도 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정책이나 건축법개정, 그리고 환경문제와 전통건축 보존 문제 등에서 건축사들의 발언이 활발해지도록 건축사협회와 협회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관직 : 제가 2004~5년 동안 협회에서 활동한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장양순 건축사가 신문을 창간할 당시 초기 편찬위원회에서 정체성 문제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때 잡지가 발행주기도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더더군요. 그래서 신문이 만들어지면 잡지는 격월간이나 계간으로까지 만들어볼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와 신문의 성격이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오고 건축사지도 한 달에 한번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배 : 그 당시는 뭐 특별한 것보다도 자료 구하기도 힘들었고, 회원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매달 나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다. 그 당시에는 다른 건축 잡지가 나왔다가 폐간되고 그랬어요.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일반 건축잡지와 건축사지가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건축사지는 어디까지나 건축사협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세 건축잡지운영 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강철구 : 다, 적자입니다.

장양순 : 위원장님. 제가 부연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 다 편찬위원장, 편찬위원을 하셨는데,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건축사지가 창간호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원이 작품을 제출하면 게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실어야지 '노'할 수가 없어요. 편찬위원 전체가 '정말 이건 안 된다'하면 몰라도, 게재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거울'이란 게 잘된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도 기록을 함으로써 이 시대의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김만성 건축사나 강철구 건축사가 말씀하신 정체성을 완전히 고쳐서 새로 출발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작품을 선택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안영배 교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말이죠.

최동규 : 저도 현재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찬위원장이 되면서 인원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지편찬위원장을 했던 오성훈 건축사, 새건축사협의회 편찬위원을 지냈던 박인수 건축사, 잡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진삼 선생, 그 다음에 자원하신 분 이용우 건축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 안영배 교수가 계속 강조 하시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

서 정보가 균일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안영배 : 작품위주 보다는 기록위주로 하라는 뜻이지요.



최동규 건축사(좌장)

1 주, 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199년~현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제가 편찬위원장 맡고나서 몇 달 동안 제출했던 작품을 모두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작품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내 주다보니 해상도나 여러 측면에서 사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책의 질이 좋지 않아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편찬위원회의 직권을 이용해 좀 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품을 선별하다보니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이런 와중에 드는 생각은 외주제작을 맡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드라마니 뭐니 모조리 다 맡기잖아요? 한 달에 한번 정신 차리고 와서 조금 몇 마디해서 책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최락청 팀장이 동분서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예산 등의 주변 상황에서 이정도 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찬위원장 재직 시 혹시 건축계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쭙어 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영배 : 그 당시 발행된 협회지들을 뒤돌아보면 예산이 적어서 규모만 작았을 뿐이지 잡지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지금과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계동정, 협회기사, 논설과 논문 그리고 회원작품 소개와 해외작품 소개 등 모두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건축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 간의 이해가 얽혀있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장양순 :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안 교수나 김 건축사가 건축사지를 만들었을 때가 어떤 면에선 내용이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사지 1호부터 493호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 같은 경우 가협회 회장이 정인국 교수였었고, 학회 회장이 김희춘 교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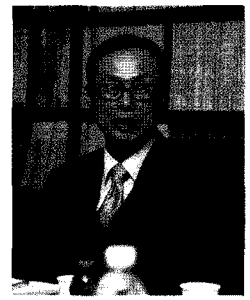
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정 교수는 이미 당시부터 '건축사는 많지만 일감은 줄었으니 도태될 것이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컴퓨터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론 공부를 해라'란 글을 썼고, 김 교수는 바로 안 교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의 중요성, 단지계획의 중요성 때문에 빨리 건축사가 그 길까지 뻗어나가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그런 점들을 신경 썼더라면, 우리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인쇄도 조잡하고 한자도 많이 섞이고 했지만 오히려 현재의 작품 위주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미래를 보는 문제, 현실을 보는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당 건립에 대한 것, 민속박물관을 경복궁 안에 지은 것, 부여 박물관 등등에 대해 좌담회를 열고 문제성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별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다는 점을 느꼈으며, 제가 지금 선배님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재의 건축사지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디자인이 멋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동규 : 저도 봤습니다. 정부종합청사 현상설계할 때 나상진 선생이 당선 되었는데, 나중에 미국 회사에서 은근슬쩍 본인들이 작업한 듯 해가지고 김수근 선생이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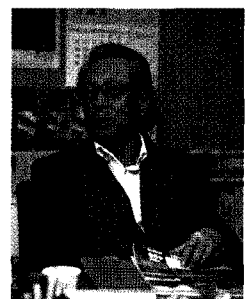
강철구 : 저도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 되었는데요. 당시 이영희 회장님이 아마 건축사지 담당이사였을 때입니다. 당시 편찬위원회에서 제호 로고를 바꾸자 해서 로고를 교체했었습니다. 돈이 꽤 들어갔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것이 부결 된 겁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였죠.

이미 디자인 의뢰는 한 상태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영희 회장님이 개인 사비로 물어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이영희 회장님한테 빚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장양순 건축사

1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199년~01년, 03년~05년 위원장
· 05년~07년, 09년~현재 담당이사



강철구 건축사

1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182년~83년, 86년~88년, 89년
~92년 위원 역임



최동규 : 방철린 건축사가 있을 때는 사건이 있었나요?

방철린 : 건축계의 사건보다는 그때는 IMF경제 위기가 와서 사무소들이 다 문 닫고 난리가 났을 때죠. 그 점이 기억이 납니다.

이관직 : 저는 건축계 사건보다 그 유원재 선생님이 건축문화대상 작품에 대한 만평을 그려서 주셨는데,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겼었죠.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었는데, 작품에 대한 어떤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양순 :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자가 원고를 편집실로 보내 줘야 되는데, 협회 회장한테 직접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찬회의에서 게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게재하지 않았는데, 회장이 '왜 게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편찬위원회에서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이라면 위원장직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편찬위원으로 같이 일하게 하여 오해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편찬위원장을 물리난 후 거꾸로 편찬위원회에서 원고청탁이 왔더군요. 그래서 칼럼하나 써서 보냈는데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의 지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공제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제회가 만들어지면 복지회나 신탁은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복지회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듯 보였습니다. 위원장이나 담당이사가 주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위원장이나 담당이사는 자기 주관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위원장이나 담당이사가 되려면 회장의 부당한 요구를 넘어서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닐 정도의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배 : 비단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각개 분야에서 논쟁이 되어야 할 일들이 많게 마련이지만 특히 건축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발언하는 일이 너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 건축물의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의 신문기사에서 건축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일은 다반사이고, 참석하더라도 말단 위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사들의 위치가 의사나 변호사 등의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자위하고만 있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건축계에는 이밖에도 논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정책이나 건축법개정, 그리고 환경문제와 전통건축 보존 문제 등에서 건축사들의 발언이 활발해지도록 건축사협회와 협회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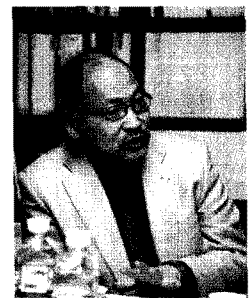
최동규 :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건축계의 문제점 일부를 이야기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실무진 책임자인 최락청 팀장이 애로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락청 : 앞서 언급됐듯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실무진도 그 방향아래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사지에 담기는 내용적인 면에서나, 이를 제작하는 실무적인 것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매체가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지요. 따라서 이를 문서화, 매뉴얼화 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 사무처에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담당직원 만으로는, 발간업무만으로도 급급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이 좀 더 보장되어 전문화되거나, 아니면 전문 출판팀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내용적으로 풍성해져 회원에게는 물론 건축계, 나아가 일반인에게도 사랑받는 잡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규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잡지뿐만이 아니고 한국 건축의 문제점인데,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이야기들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대책도 좀 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이관직 건축사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관직 :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발주 방식이라 그럴까요? 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일을 의뢰해서 건축사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임기 위주의 턴키나 BTL로 2~3년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가 시공사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건축주·건축사·시공사 이런 삼각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더군요. 이렇다보니 마치 시공사 밑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사무소로 변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여 년 동안 누적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건축계가 힘을 합쳐서 발주 방법, 현상설계라든가 이런 시공하고 분리해서 건축사가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는 토양을



이관직 건축사

1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무소
103년~07년 위원 역임

잡지를 통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철린 :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안중근의사기념관 준공식을 하는데, 건축사는 부르지도 않고 시공자하고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잔치라며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사사무소가 건설회사 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으로 건축관련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어, 그들이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턴키방식이라든가 BTL방식 이것은 특수한 분야, 발전소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하던 정식 발주 방식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건축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건축사의 지위가 향상되겠죠. 건설사가 건축사사무소 보다 위에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 디자인 의도와 벗어난 시공, 시공편의의 설계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무슨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건축사를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건축사가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문제도 똑같아요. 같은 건축사가 '설계자를 못 믿겠다'해서 감리전문회사를 만들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작품을 설계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건축사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건축사 자신이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사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사 자신들이 각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당면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구 : 저는 우리 건축사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될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회생활 하는데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그 협업,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나 다 대표가 되려고 해요. 대표가 되지 않아도 디자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받으려는 자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건축사사무소 소장이고, '내가 디자인해야' 되고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것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좋은 일화가 있는데, 10여 년 전에 제 밑에 사람들에게 함께 일해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겠다" 그랬죠. 즉 회사의 주식을 일부 주겠다.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보답으로 주식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점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

도 없어요.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있다가 난 나가서 하나 차리면 된다. 차리면 뭐하느냐 90%가 망해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줄 아나. 매일 앉아 시스템에서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걸 자기가 하려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돼요.

나는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디자인만 하고, 영업을 하겠다 하면 영업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공부해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건축사 연수회 같은데 가보면 협업하고,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사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잘 못합니다. 요즘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도근 : 건축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 대학 교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본인은 건축사로서 실무와 대학교수, 자문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등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 교수 초빙 형식은 박사학위를 배경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수년 내로 건축계는 박사학위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장양순 : 요즘 건축 전문 공부는 많이들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도덕·철학 공부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일조라 해서 소득의 1/10을 내죠. 시간도 1/10을 봉사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들한테 1년에 8시간, 1/365만 우리 협회를 위해 한번 노력해 달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리하면 신문, 잡지 원고가 넘쳐나고 건축사 소득도 몇 배 올라갈 것입니다. 불세출의 리더가 한 명 나와서 우리들이 전부 단합을 해야 합니다. 철학, 도덕 교육이 제대로 되면 단합은 쉬워집니다. 그러면 3단체 통합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건축사가 전부 대한건축사협회에 들어 와야만, 통일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설계를 100%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2배~3배 이상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정하는 비용에 20~30% 설계비도 못 받고 죽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1/3은 아예 일이 없습니



다.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의 탓만 하고 정부 탓도 하는데, 이에 앞서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유능한 리더가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김만성 : 장 건축사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요. 일단은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끼리의 모임을 자주 갖는 시간이 있어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건축사지로서 그간 우리의 언론 매체를 이어온 것처럼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동규 : 저도 한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안영배 교수가 말씀해 주시고 끝맺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큰일은 나는 못하는' 거라는 그런 좌절감 내지는 체념이 생기는데, 방금 전 또 우리 강철구 건축사 이야기 들으니까, '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강 건축사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 보면 '신춘문예'를 통해서 갑자기 등장해서 소설가가 입문하고 있듯이, 건축계에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장벽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습니다. 미군 철조망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해결 하지 못한다면, 계획안 정도는 제출물을 좀 간소화해서 계획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바뀌면 어떨까? 그 정도만이라도 문이 조금 열리면 좋겠습니다. 저만해도 건축계에 몸 담은지 30여년 되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더러 비웃듯이 "남들 다 커질 때 뭐했냐" 말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김수근 선생 사무실에 근무할 때 딱 12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큰일 다 할 줄 알았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만 큰일 하는 줄은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깨닫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하나가 제일 아쉬워요. 누구든지 밭줄 하나 가지면 큰산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영배 교수가 말씀해주십시오.

안영배 : 협회지에서도 자주 특집 기사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한건축학회의 학회지에서는 매달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특집은 제각기 성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특집 1년 계획을 미리 다 하는 것입니다. 특집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말

기기는 아마 역부족일거예요. 어느 특집이든 누군가 맡아 역할분담해서 필진을 정하는 것입니다. 편찬위원회에서도 이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 하는 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토픽(화제) 되는 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알차게 건축사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동규 : 지금 안 선생님 끝 이야기에서 제가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즉, 작품은 작품대로 게재하되 토픽 정하듯이 중요한 것을 굵직하게 축포 터뜨리듯이 계속 터뜨리는 거죠. 발주제도든, 현안문제들을... 그래서 그 지혜를 모아서 건축계 환기도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방철린 : 디자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책의 페이지에 여백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꽉꽉 채워져서, 숨이 차는 느낌인데 여백을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회의에서 정리가 될 문제이긴 한데, 설계경기 내용 같은 경우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책의 뒷부분에다가 축소해서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과 직접 관련이 적은 '회원들 취미'나 '동우회 활동' 같은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히려 해외건축 동향이나 건축과 관련된 정보위주로 게재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양순 : 안 건축사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제위원회 위원모집에는 10명을 뽑는다면 100명쯤 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지는 5명을 모집하면 10명이나 올까말까 하고, 신문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아예 없습니다. 시간 많이 뺏기고 일량은 3D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글도 잘 쓰고 작품도 잘하고 와서 일해 줄 사람은 자기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문편집위원회는 TO가 다섯인데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제 대학 후배예요. 마지못해 온 거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동규 :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사지 500호 특집 역대편찬위원장 방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